

청원 내수리 무문토기 산포지 발굴조사 보고(약) 清原 內水里 無文土器 散布地 發掘調査 報告(略)

趙 由 典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

洪 性 彬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目次

- | | |
|----------------|----------|
| 1. 概要 | 4. 出土 遺物 |
| 2. 發掘調査 經過(日誌) | 5. 考察 |
| 3. 發掘 遺構 | |

1. 개요(概要)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에서는 정부(政府)의 중원문화권(中原文化圈) 개발사업계획(開發事業計劃)에 따라 유적(遺蹟)의 정비사업(整備事業)과 병행하여 각종(各種) 학술조사(學術調査)인 지표조사(地表調査), 정밀학술조사(精密學術調査) 및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연차적(年次的)으로 실시중(實施中)에 있다.

이 중원지방(中原地方)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변경(邊境)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간(三國間)에 각축이 심하던 지역(地域)에 놓여 있어 문화(文化)의 성격(性格)상 그 특이성(特異性)이 인정(認定)되어 왔음으로 이 지역(地域) 문화(文化)를 구명(究明)하고 이 지역내(地域內)의 유적정비사업(遺蹟整備事業)의 고증자료(考證資料) 및 학술연구(學術研究)의 기본자료(基本資料)를 얻고자 하는 뜻에서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에서는 1984(年)도 제(第) 1차(次) 발굴조사(發掘調査) 계획(計劃)으로 이 지역(地域)을 대상(對象)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굴과 개간 등으로 유적이 파괴된 채로 있는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 내수리(內秀里) 316번지(蕃地)의 무문토기(無文土器) 산포지(散布地)를 발굴조사(發掘調査) 대상(對象)으로 하여 중원문화(中原文化)의 성격구명(性格究明)에 필요(必要)한 기본자료(基本資料)를 얻고자 한 것이다.

발굴조사(發掘調査) 기간(期間)은 1984年 10月 4일에 착수(着手)하여 동년(同年) 10月 29일에 마무리하였다.

발굴조사(發掘調査) 담당(擔當)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미술공예연구실(美術工藝研究室) 주관(主管)으로 실시(實施)하면서 조사(調査)를 원활히 수행(修行)하고자 외부(外部)의 전문인사(專門人事)를 지도위원(指導委員), 또는 조사위원(調査委員)으로 위촉하여 조사실시(調査實施)하였으며 그 구성(構成)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指導委員): 김원용(서울대 박물관장)金元龍(서울大 博物館長)
 한병삼(국립중앙박물관장)韓炳三(國立中央博物館長)
 김정기(문화재연구소장)金正基(文化財研究所長)

조사위원(調查委員): 이용조(충북대 박물관장)李隆助(忠北大 博物館長)
 장경호(미술공예연구실장)張慶浩(美術工藝研究室長)

조사책임자(調查責任者): 조유진(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관)趙由典(文化財研究所學藝研究官)

조사원(調查員): 홍성빈(문화재연구소)洪性彬(文化財研究所)
 김병준金炳竣()
 유관현柳貫鉉()
 박문제朴文濟()
 이영훈(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안승모()
 임영진(서울대 조교(助教))

2. 발굴조사 경과(일지)(發掘調查 經過(日誌))

1984年 10月 4일부터 10月 29일까지의 작업일정(作業日程)을 약술(略述)한다.

○ 10月 4日—10月 5日

서울을 출발 청주에 도착.

도청(道廳), 청원군청(淸原郡廳)과 발굴조사(發掘調查) 협의(協議).

발굴조사(發掘調查)에 필요(必要)한 제반(諸般)사항 준비, 용품(用品)준비, 인부(人夫)수배, 및, 발굴지역 주변정돈.

○ 10月 6日

발굴대상구역 주변 측량(測量) 및 기준목(基準木) 설치작업(設置作業)

오전(午前) 10時 30分 개토제(開土祭)

참석자(參席者): 조유진(趙由典)(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

김용조(金隆助)(충북대 박물관장(忠北大 博物館長))

김인제(忠北道 文化財學藝官)

김태부(淸原郡 文化係長)

조사원(調查員), 발굴인부(人夫) 등.

오후(午後): 기준점(基準點)에 의하여 대부분 동서(東西)로 길게 2m 폭(幅)으로 우선 탐색 pit 6개소(個所) 설정, 제초작업 실시.

pit 1은 남북(南北)으로 길게 탐색 pit 설정(設定).

pit IV에서 표토제거(表土除去) 후 다갈색(茶褐色) 점토층(粘土層)에서 토기편(土器片)(구연부 口緣部, 저부 底部)이 다수(多數) 출토(出土)됨.

○ 10月 7日

pit I: 약(約) 20—60cm 깊이로 제거(除去).

토층(土層)의 변화(變化)는 거의 없고 하부(下部)로 점점 암갈색(暗褐色)으로 나타남.

pit III: 잔자갈과 모래가 섞인 암갈색(暗褐色)의 점토층(粘土層)이 노출됨, 그 하부층(下部層)에서 다갈색(茶褐色) 점토층(粘土層)이 노출됨.

기준점(基準點)에서 동(東)으로 4m, 남(南)으로 1m 위치 암갈색 점토층에서 적색무문토기(赤色無文土器) 저부편(底部片), 동체부편(胴體部片)이 출토됨, 일단 무문토기(無文土器)의 출토로 보아 선사시대(先史時代) 유적지로 판단이 됨.

○ 10월 8일

pit VI: 표토제거(表土除去), 다갈색점토(茶褐色粘土), 회갈색점토층(灰褐色粘土層) 노출(露出), 회갈색점토층(灰褐色粘土層)에서 토기편(土器片), 저부편(底部片) 다량(多量) 출토(出土).

pit VII: 동서(東西) 12m, 폭(幅) 2m의 Tr에서 다갈색(茶褐色), 회갈색(灰褐色)의 점토층(粘土層)이 나타남.

표토층(表土層)에서 석검병부편(石劍柄部片) 1점(點) 출토(出土)됨.

○ 10월 9일

pit VI: 계속하여 회갈색점토(灰褐色粘土) 제거(除去) 다갈색점토층(茶褐色粘土層) 노출, 토기편(土器片)이 집중적(集中的)으로 노출되는 부분(部分)은 흑갈색(黑褐色) 토층(土層)임, 남북(南北)의 토층(土層) 단면(斷面)에서 다갈색(茶褐色)의 바닥 생토층(生土層)이 노출됨.

○ 10월 10일—10월 19일

pit VII: 남서편(南西便)에서 생토층노출, 야산(野山) 경지정리(耕地整理) 작업시(作業時) 각인 것으로 판단.

서편(西便)에 민묘(民墓) 이기(二基)가 있다.

pit III과 pit IV의 북편(北便) 바닥면이 독 속으로 연장되므로 윗단에 탐색 pit X-1, X-2를 설정(設定), 제토(除土)함. 특이(特異)한 유구(遺構)가 확인(確認)되지 않음.

조사(調査)된 구역(區域)의 전반적(全般的)인 유구정리작업(遺構整理作業), 현상(現狀)촬영 실측(實測)후 노출된 토기편(土器片) 및 석재편(石材片) 수습(收拾), 하부(下部)유구 정밀조사(精密調査).

pit VIII: 서편(西便)의 다갈색점토(茶褐色粘土), 사질층(砂質層)에서 토기저부편(土器底部片) 수습(收拾), 토층변화(土層變化)는 없음.

pit VI 구역(區域)의 윗단북편(北便)으로 XI과 XII 탐색 pit 설치.

○ 10월 20일

경작지 윗단에 남북(南北) 5m, 폭(幅) 2m의 탐색 pit XII 설정(設定), 표토(表土) 제거(除去). 회갈색(灰褐色) 부식사질층(砂質層)에서 토기편(土器片), 석촉(石鏃) 1점(點) 출토(出土)됨, 부식(腐蝕) 사질토(砂質土) 제거(除去)후 적갈색(赤褐色)의 점토층(粘土層) 노출.

○ 10월 21일

탐색pit 북편(北便)에서 주거지(住居址)의 벽(壁) 어깨선(線)이 나타남, 동서(東西) 8m, 남북(南北) 5m 규모(規模)로 확장(擴張)하여 제토(除土), 어깨선(線) 안쪽 회갈색(灰褐色) 부식사질토(腐蝕砂質土) 제거작업(除去作業).

많은 토기편(土器片), 석조편(石鑿片) 1점(點) 수습(收拾)함.

○ 10월 22일

서편(西便)의 벽선(壁線)은 확인(確認)할 수 없으나 직경(直徑) 약(約) 400cm 정도(程度)의 원형수혈주거지(原形竪穴住居址) 외곽 규모가 확인됨.

서남측(西南側)에 부속(附屬) 시설(施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0월 23일

주거지(住居址) 내부(內部) 회갈색점토층(灰褐色粘土層)을 제거(除去) 북측벽(北側壁)의 잔존(殘存) 높이 약(約) 40cm 정도(程度)이며 내부 바닥은 다갈색점토층(茶褐色粘土層)과 중앙부(中央部)에서 소토층(燒土層)이 나타남, 북편벽(北便壁) 가까이의 점토층(粘土層)에서 홍도편(紅陶片), 석촉(石鏃), 토기편(土器片) 출토(出土).

○ 10월 24일

주거지내(住居址內) 회갈색(灰褐色) 부식토(腐植土) 및 소토제거(燒土除去), 구지표면(舊地表面)이 남(南)으로 경사(傾斜)되면서 북벽(北壁)은 약(約) 40cm의 높이가 잔존하나 남측벽(南側壁)은 유실(流失)되었는지 원래의 형태(形態)인지 확인할 수 없음.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의 중심부(中心部)에 로지(爐址)로 판단되는 동서(東西) 90cm, 남북 폭(南北幅) 40cm의 타단형(楕丹形) 소토층(燒土層) 확인(確認), 그 남측(南側)에 로지(爐址)의 턱으로 보이는 폭(幅) 15cm, 높이 3—5cm 정도의 반원형(半圓形) 회갈색점토(灰褐色粘土) 다짐층이 노출됨.

○ 10월 25일

소토(燒土)층 제거, 타단형(楕丹形) 구덩이 내부(內部)의 양(兩)쪽에 직경(直徑) 20cm, 깊이 35—40cm 구덩이 노출, 구덩이 속에 불먹은 고운 회색사질토(灰色砂質土)가 채워져 있음. 내부(內部) 바닥층에서 석촉(石鏃), 토기편다수(土器片多數)와 유일하게 무문토기(無文土器) 완형(完形) 1점(點)이 수습(收拾)됨.

○ 10월 26일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서남편(西南便)에 접(接)하여 직경 약 180cm의 유구 흔적이 노출. 용도(用途)는 확실치 않으나 생활용품(生活用品)을 보관(保管)하는 부속시설로 판단됨.

○ 10월 27일—10월 29일

발굴유구 실측(實測).

출토유물 정리(整理) 및 사진촬영.

출토유물 공주박물관(公州博物館)으로 이관(移管) 운송(運送).

3. 발굴 유구(發掘 遺構)

발굴조사지역(發掘調査地域)은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 내수리(內水里) 316번지(蕃地)에 위치(位置)하는 낮은 구릉지대(丘陵地帶)로서 청주(淸州)에서 충주(忠州)로 가는 도중(道

中) 북일면사무소(北一面事務所)에 이르기 바로 전 도로좌측(道路左側)에 있는 수성초등학교(秀城初等學校) 뒷편 남향(南向)으로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경작지(耕作地)가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그 유적지이다. 이곳 표토층(表土層)에서는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 많이 널려져 있고 그 주변(周邊)에서 1972년 도로확장(道路擴張) 공사시(工事時)에 돌도끼 1점(點), 돌화살촉, 돌칼 1점 등이 수습(收拾)되어 현재(現在) 수성초등학교(秀城初等學校)에 보관(保管)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 선사유적이 있음이 판단(判斷)되어 이번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발굴조사(發掘調査) 지역(地域)은 현재(現在) 내수리(內水里)에 주거(住居)하는 유동권씨(柳東權氏)가 경작(耕作)하는 밭으로서 경사진 지형의 가장 윗부분에서부터 우선 동서(東西)로 길게 10m씩 2m 폭(幅)으로 3개소(個所)에 탐색 Trench를 설정(設定)하고 상황(狀況)에 따라 확장(擴張)하기로 하여 표토(表土)(경작지, 耕作地)를 제거(除去)하였다.

표토층(表土層)은 15~20cm로서 바로 아래층에서 당시 생활층(生活層)으로 보이는 회갈색(灰褐色)과 다갈색(茶褐色)의 점토층(粘土層)이 나타나며 그 점토층(粘土層)에서 토기편(土器片)과 무문토기(無文土器) 저부편(底部片)이 다수(多數) 산재(散在)하여 노출(露出)되었다.

출토(出土)된 토기(土器)의 구연부(口緣部)와 동체부(胴體部)는 거의 결실(缺失)된 상태(狀態)이며 노출(露出)된 회갈색(灰褐色)의 점토층(粘土層)을 따라 토층(土層) 정밀조사(精密調査)를 계속 실시(實施)하였으나 당시(當時)의 구지표(舊地表) 상층(上層)은 거의 유실(流失)되었고 그 하층(下層)만 남아 있으며 이 층(層)에서는 토기편(土器片)들만 노출되고 유적(遺蹟)의 형태(形態)는 확인(確認)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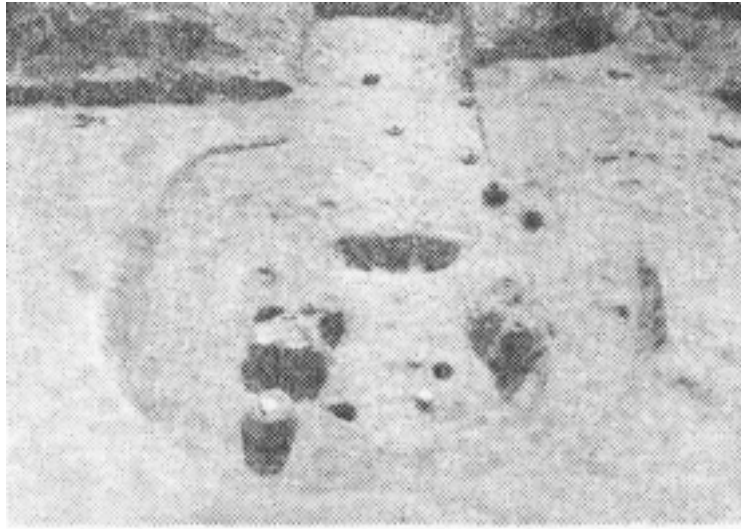
시굴조사시(試掘調査時) 지형적(地形的)으로 2단(段)으로 된 밭의 아랫부분에서는 유적(遺蹟)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윗부분의 경작지(耕作地) 북편(北便)으로 탐색 Tr를 설정(設定)하여 유구(遺構) 확인조사(確認調査)를 실시(實施)하였다.

그 윗부분의 경작지(耕作地)에 동서(東西) 8m, 남북(南北) 5m를 확장한 탐색 TrXII구역(區域)에서 표토(表土)와 회갈색(灰褐色)의 부식토(腐植土) 20cm내외를 제거(除去)하는 과정에서 원형(圓形)의 유구(遺構) 흔적(痕迹)을 확인(確認)하게 되었다.

이 지형(地形)은 낮은 구릉에 남향(南向)으로 된 7-8부능선상의 풍화(風化)된 암반층(岩盤層)에서 직경 4m 내외(內外)의 원형(圓形)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의 어깨선이 노출되었다. (사진 1,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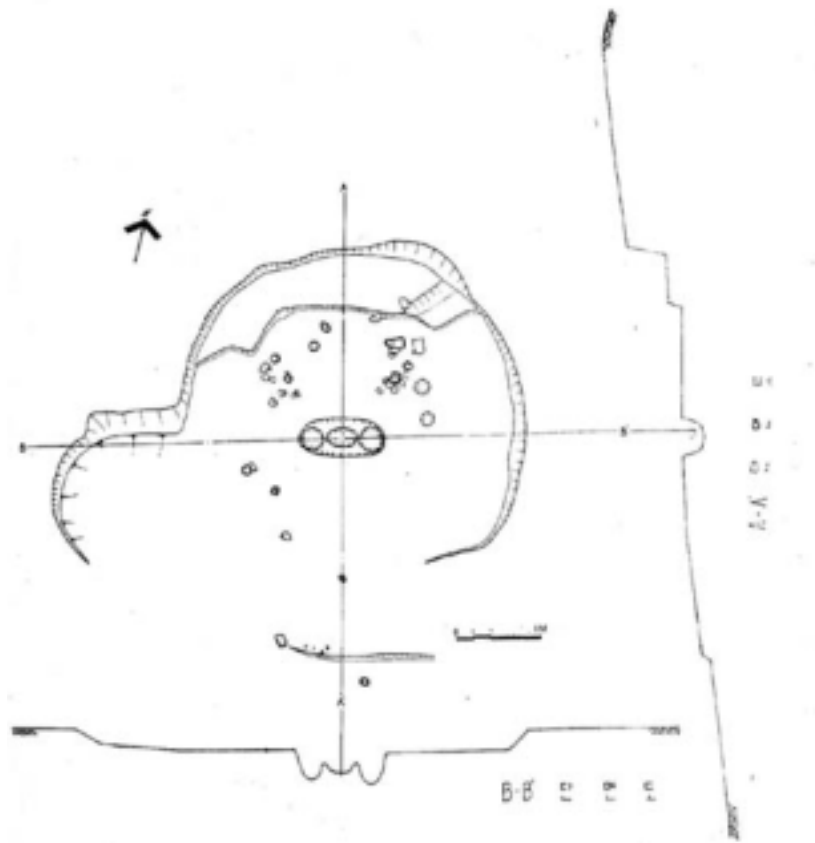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북측벽(北側壁)의 잔존(殘存)높이는 40~50cm이며 전체지형(全體地形)이 북(北)에서 남(南)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어 남(南)으로 내려가면서 점차로 수혈주거지 벽의 어깨면 높이가 낮아져 남측면(南側面)의 벽(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원형(圓形)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내부(內部)는 퇴적된 부식토 층으로 회갈색(灰褐色)의 부식된 사질토(砂質土)와 점토층(粘土層)으로 채워져 있고 그 아래의 약 15cm 두께의 바닥층에는 적갈색(赤褐色)의 점토층(粘土層)이 다져져 있으며 중앙부(中央部)의 바닥층(層) 1부(部)에는 소토(燒土)가 노출되고 있다.



〈사진 1〉 圓形豎穴住居址發掘露出狀態(北→南)

<사진 1> 원형수혈주거지발굴노출상태(북→남)(圓形豎穴住居址發掘露出狀態(北→南))



〈圖面 1〉 清原 內水里 豎穴住居址 實測圖

<(圖面) 1> 청원 내수리 수혈주거지 실측도(清原 內水里 豎穴住居址 實測圖)

바닥 약 20~10cm 의 적갈색(赤褐色) 점토층(粘土層)에서 적색(赤色)의 깊은 사발형 무문토기 완형(完形) 1점(點)과 석촉(石鏃), 무문토기저부(無文土器底部) 및 동체편(胴體片) 다수(多數), 홍도편(紅陶片), 석제품 등 여러 종류(種類)의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었다.

또한 바닥 중앙부(中央部)에 동서(東西) 90cm, 폭(幅) 40cm의 타원형구덩이가 노출되었으며 그 구덩이의 벽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로지(爐址)로 판단되었다.

또한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옆에서 깊이 30cm정도의 구덩이가 나타났고 그 바로 남편(南便)에서 높이 3~5cm, 폭 15cm 정도의 적갈색(赤褐色) 점토층(粘土層)이 반월형(半月形)을 이루는 뜻을 확인하였으며 그 뜻은 일부러 단단하게 다진 층이거나 열에 의하여 굳은 흙으로써 인위적(人爲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의 가장자리에 용도(用途)를 알 수 없는 소형(小形) 구덩이가 부정형(不整形)으로 수개(數個) 나타났다.

또한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의 서남측(西南側)에 인접되어 반원형(半圓形)의 직경(直徑) 180cm 정도의 작은 시설(施設)이 있었는데 그 용도(用途)는 확실(確實)하지는 않으나 생활용품(生活用品)을 보관(保管)하던 부속시설로 추정됐다. 이곳에서 특이한 유물은 없고 다만 토기편(土器片) 몇점이 수습되었을 뿐이다.

그간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체로 사발형무문토기와 석제품(石製品)으로서 토기(土器)는 대부분 적갈색(赤褐色)이며 태토(胎土)는 굵은 모래가 섞였고 소성상태(燒成狀態)는 연질(軟質)이며 저부(底部)는 대체로 평저(平底)를 이루며 동체부(胴體部)는 둥근형과 직립(直立)된 형으로 구분(區分)된다.

석제품(石製品)으로는 석촉(石鏃), 석초(石鏢)(돌끝), 환상형석부(環狀形石斧), 유구석부편(有溝石斧片) 등으로 생활용품(生活用品)들이 여러종류 수습(收拾)되었다.

충북(忠北) 내륙지방(內陸地方)인 이 지역(地域)은 이 외(外)에도 선사시대(先史時代) 유적(遺蹟)이 전(前)에 이미 밝혀진 바 있듯이 무문토기(無文土器)의 원형수혈주거지(圓形竪穴住居址)와 적갈색(赤褐色)의 무문토기(無文土器), 마제석검편(磨製石劍片), 석촉(石鏃), 홍도편(紅陶片) 등 이 지역내(地域內)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생활상(生活相)을 밝히는데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를 얻은 것이다.

4. 출토 유물(出土 遺物)

청원(淸原) 내수리(內水里) 원형수혈주거지(圓形竪穴住居址)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주로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이며 또한 정교(精巧)하게 마연(磨鍊)된 각종 석기류(石器類)가 수습(收拾)되었다. 유물(遺物)은 발굴조사(發掘調査) 구역내(區域內)에서 토기저부편(土器底部片)과 석촉(石鏃), 돌끝 등이 일부(一部) 수습(收拾)되었으며 원형수혈주거지(圓形竪穴住居址) 내부(內部) 중앙(中央)의 북서편(北西便)바닥에서 심발형(深鉢形) 무문토기(無文土器) 완형(完形) 1점(點), 다수(多數)의 저부편(底部片)과 석기(石器)로는 석촉(石鏃), 석부(石斧, 돌도끼), 돌끝, 등도 수습(收拾)되었다.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의 수량(數量)은 다음과 같으며 중요(重要) 유물(遺物)에 대하여 설명(說明)을 약술(略述)하고자 한다.

출토유물 현황(出土遺物 現況)

| 유물명칭(遺物名稱) | 수량(數量) | 비고(備考) |
|---------------------------------|--------|---------------------------|
| 심발형토기(深鉢形土器) | 3點 | 1點은 完形,2點은 一部 復原 破片 |
| 사발형토기(砂鉢形土器) | 1 | 破片 |
| 2중구연토기(口緣 土器) | 1 | " |
| 석 착 (石 鑿) | 3 | " |
| 석 족 (石 鏟) | 3 | " |
| 환장석부(環狀石斧) | 1 | " |
| 방 추 차 | 1 | " |
| 유구석부(有溝石斧) | 1 | " |
| 홍도편 (紅陶片) | 1 | " |
| 석검과편 (石劍破片) | 3 | " |
| 계(計) | 18點 | |
| 기타 토기편(土器片) 및 석재편(石材片) 多數(5箱子分) | | |

가) 토기(土器)

1) 심발형 토기(深鉢形土器)(사진 2, 도면 2)



<사진 2> 심발형 무문토기(深鉢形 無文土器)



〈도면 2〉 심발형무문토기 실측도(深鉢形無文土器 實測圖)

원형수혈주거지(圓形竪穴住居址) 중앙부(中央部) 서편(西便)의 바닥 회갈색(灰褐色)토층에서 출토(出土)된 무문토기(無文土器)로서 바닥에 엮어진 상태(狀態)로 노출(露出)되었다.

주위(周圍)에는 대부분 토기편(土器片)으로 저부편(底部片)과 동체부편(胴體部片)이 수습(收拾)되었으나 본(本) 토기(土器)만이 유일하게 거의 완형(完形)으로 수습(收拾)되어 이 지역토기(地域土器)의 완전(完全)한 형태를 비교 연구하는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토기(土器)는 적색(赤色)의 무문토기(無文土器)로 태토(胎土)는 붉은 모래알이 많이 섞인 것으로 연질(軟質)이며 바닥은 평저(平底)이고 동체(胴體)는 약간 둥근 기벽이 위로 약간 벌어지고 구연부(口緣部)의 입술은 조금 얇게 만들어졌다.

구경(口徑) 9.7 cm, 저경(底徑) 6.2 cm, 높이 8.7 cm, 주변에서 수습(收拾)된 토기(土器)의 저부편(底部片)과 동체부편(胴體部片)을 복원(復元)하여 거의 기형(器形)을 만든 것으로 태토(胎土)는 역시 붉은색(色)이며 붉은 모래알이 많이 섞인 연질(軟質)의 무문토기(無文土器)로서 앞에서 설명(說明)한 내용(內容)과 거의 비슷하다.

토기(土器)의 모양은 완전(完全)히 알 수 없으나 저부(底部)만은 완전(完全)한 상태(狀態)로 수습(收拾)되었으므로 무문토기 비교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저경(底徑) 6.5~7 cm 정도임(사진 3, 도면 3—)



〈사진 3〉 무문토기(無文土器)



<도면 3> 심발형무문토기 실측도(深鉢形無文土器 實測圖)

2) 이중구연토기(二重口緣土器)(사진 4)

Ⅲ pit 구역(區域) 약 20cm 두께의 표토(表土) 제거(除去) 후 다갈색(茶褐色)의 점토층(粘土層)에서 출토(出土)된 흑색(黑色)의 연질토기(軟質土器)로 형태(形態)와 크기는 알 수 없으나 구연부(口緣部)의 일부(一部)와 동체부(胴體部)의 일부(一部)가 일괄(一括)로 수습(收拾)되었다.



<사진 4> 이중구연토기(二重口緣土器)

동체(胴體) 중앙부(中央部)는 약간 둥근모양이며 구연부는 낮게 조금씩 파인 홈으로 둘러졌으며 주연부(周緣部)는 안에서 밖으로 접어서 구연(口緣) 입술의 면(面)을 만들고 접어서 주연부(周緣部)의 어깨선에서 동체(胴體)와 연결(連接)되는 부분(部分)을 삼각(三角)모양의 음각(陰刻)으로 눌러 접합(接合)시켜 이중(二重)의 구연부(口緣部)를 만들었다.

동체부(胴體部)에는 무문(無文)이며 태토(胎土)는 굵은 모래를 섞어서 만든 토기(土器)로서 기벽(器壁)이 두터우며 중간(中間) 크기의 생활용품(生活用品)으로 판단되는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특색(特色)을 나타내는 중요(重要)한 토기(土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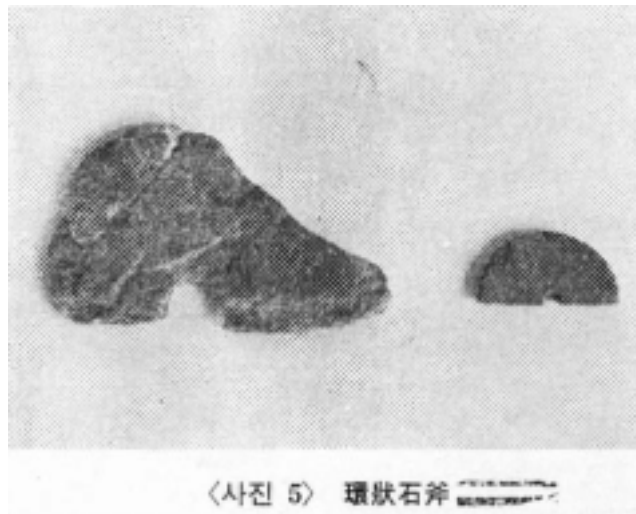
구연구 직경: 12.6 cm 로 추정(推定)됨.

나. 석기(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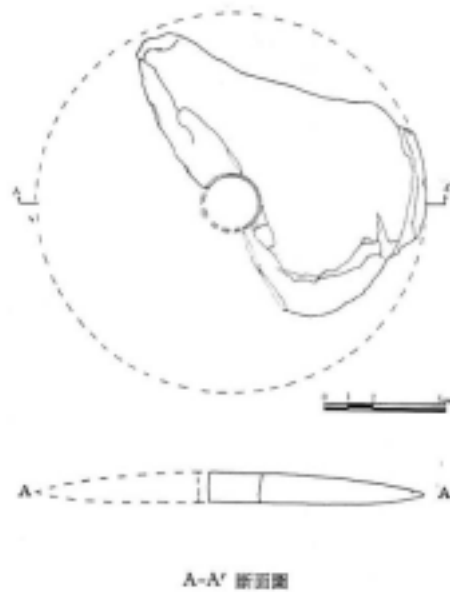
1) 환상석부(環狀石斧)(사진 5, 도면 4)

흑색(黑色)의 편마암제 석기(石器)로서 일부(一部) 잔존상태(殘存狀態)로 수습(收拾)되었다.

석기(石器)의 중앙(中央)에는 직경 2.2 cm 의 원형(圓形)구멍이 있으며 잔존부분의 둘레에는 날을 만든 흔적이 있어 원래 둥근모양의 돌도끼 종류로 둘레에는 날이 만들어져 물건을 자르거나 깎는데 사용되었던 원형의 돌도끼로 판단된다.



<사진 5> 환상석부(環狀石斧)



<도면 4> 환상석부 실측도(環狀石斧 實測圖)

A-A' 단면도(斷面圖)

<도면(圖面) 4> 환상석부 실측도(環狀石斧 實測圖)

일반적(一般的)인 석부(石斧)나 유구석부(有溝石斧) 등과 형태가 전혀 다른 것으로 일부(一部) 편(片)이나마 대단히 중요한 비교 연구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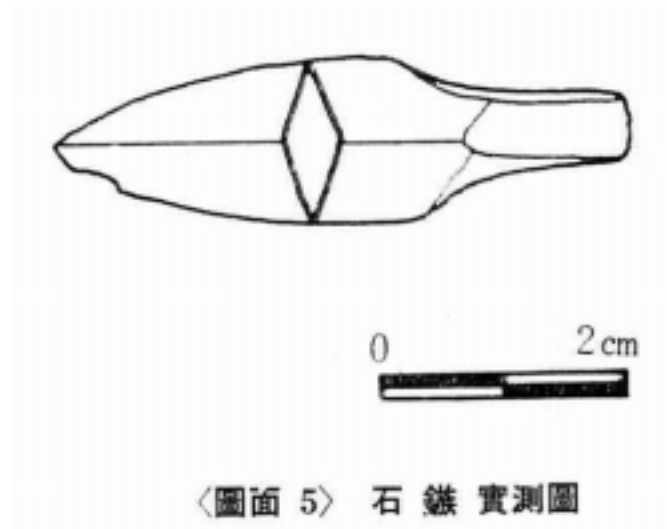
반경 7.8 cm, 두께 1.2 cm, 중앙구멍직경 2.2 cm.

2) 석촉 3점(石鏃 3點)(도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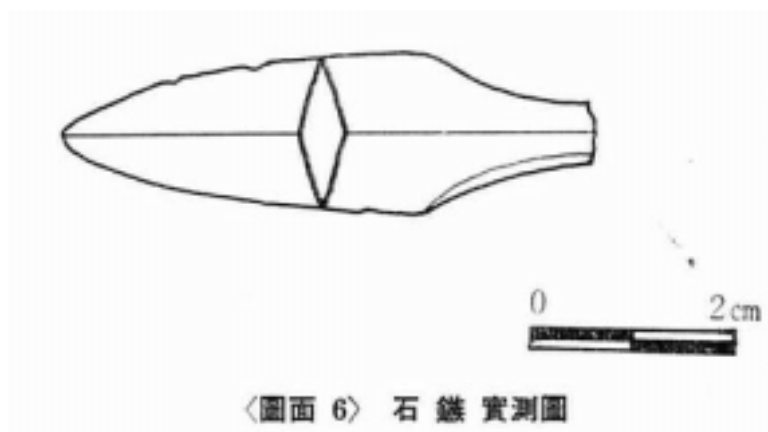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의 표토층(表土層)과 내부(內部) 생활면(生活面)인 적갈색(赤褐色)의 점토층(粘土層)에서 무문토기(無文土器)와 함께 주위에서 출토(出土) 되었다.

석촉(石鏃)은 점판암재(粘板岩材)로 그 형식(形式)은 유경석촉(有莖石鏃)으로서 꼬다리가 촉신에서 자루에 박히게 되며 촉날은 양날로 능선(稜線)을 이루고 있다.

석촉(石鏃) 2점(點)은 잔존상태(殘存狀態)가 양호(良好)하다.



<도면(圖面) 5> 석촉 실측도(石鏃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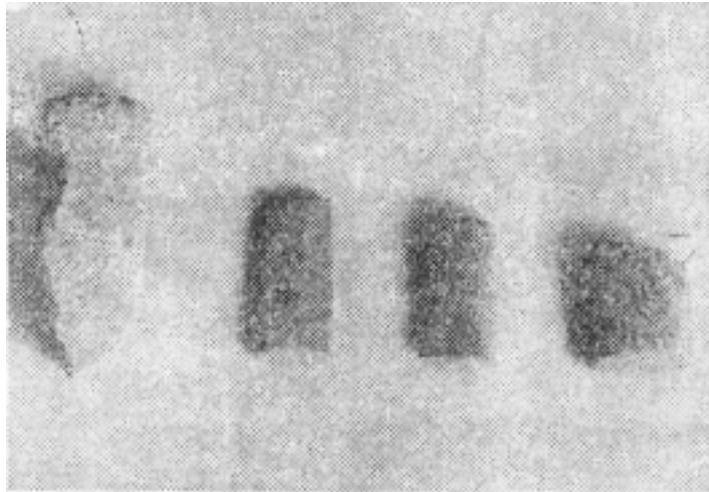
<도면(圖面) 6> 석촉 실측도(石鏃 實測圖)

길이 4.7~5 cm, 폭 1.3~1.5cm, 두께 0.4 cm.

3) 유구석부(有溝石斧)(사진 6-1, 도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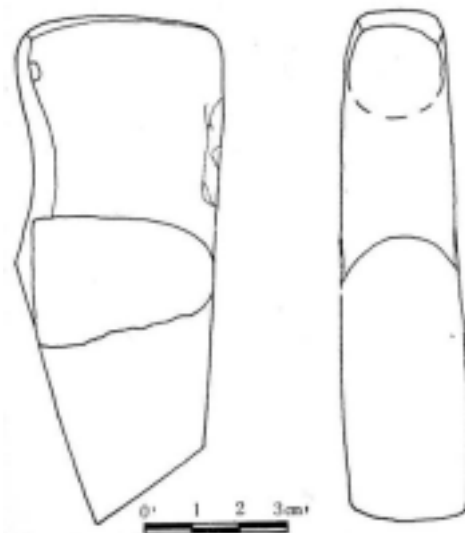
손잡이 부분은 약간 둥근형태로 사용(使用)에 편리하도록 손으로 잡는 부분은 홈을 만들었으며 거의 중앙부(中央部) 아래에서 날 기능을 하는 부분에는 약간 좁아지면서 직선으로 면을 만들었으며 끝부분은 약간 둥근형태의 날을 만들어 도끼의 기능이 잘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길이 10.7 cm, 폭 4.2 cm, 두께 2.5 cm.



〈사진 6〉 有溝石斧 및 돌끝 편

<사진 6> 유구석부(有溝石斧) 및 돌끝 편



〈圖面 7〉 有溝石斧 實測圖

<도면 7> 유구석부(有溝石斧) 실측도(實測圖)

5. 고찰(考察)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形態)의 원형(圓形)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는 3—4개 지역(地域)에서 발굴조사(發掘調査)된 바 있다.

그중 1967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서 발굴조사(發掘調査)한 바 있는 충남(忠南) 서산군(瑞山郡) 해미읍(海美邑) 휴암리(休岩里)의 선사유적(先史遺蹟)¹⁾에서도 청원(淸原) 내수리(內水里)의 원형(圓形)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와 형식(形式)을 같이하는 원형수혈주거지(圓形竪穴住居址)가 확인(確認)된 바 있으며 또한 금강유역(錦江流域) 일대(一帶)의 무문토기(無文土器)가 출토(出土)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유적(遺蹟)에 대한 연차조사계획(年次調査計劃)의 일환(一環)으로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서 1975년~1977년까지 조사실시(調査實施)한 충남(忠南) 부여군(扶餘郡) 초촌면(草村面) 송국리(松菊里) 일대(一帶)의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도 원형(圓形)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가 확인(確認)되었다.²⁾

그리고 전남(全南) 영산강유역(榮山江流域)의 선사시대(先史時代) 문화권(文化圈)을 형성(形成)하는 취락지(聚落址) 조사(調査)로서 1977년에 전남대학교(全南大學校)에서 발굴조사(發掘調査)한 전남(全南) 광주시(光州市) 송암동(松岩洞)의 1호(號) 주거지(住居址)가 원형(圓形)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로 확인(確認)된 바 있다.³⁾ 이는 전형적(典型的)인 무문토기(無文土器) 출토(出土)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후기(後期)의 유적(遺蹟)으로서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 유단석부(有段石斧) 등으로 농경생활(農耕生活)의 대표(代表)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한편 마제석촉(磨製石鏃) 등이 출토(出土)되어 수렵(狩獵), 어로방법(漁撈方法)으로 생활(生活)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유적이다.

이와같이 원형(圓形)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가 발견(發見)되는 지역(地域)의 문화(文化)는 다른지역의 문화(文化)와 차이(差異)가 있는 특이(特異)한 형태(形態)를 갖는 유적으로서 이들 문화(文化)의 구명(究明)은 우리나라 고고학(考古學) 연구(研究)에 매우 귀중(貴重)한 것으로서 중원문화권(中原文化圈) 지역(地域) 내(內)의 선사시대(先史時代) 주거생활상(住居生活相)을 밝히는데 비교연구의 기본자료(基本資料)를 얻게된 것이다.

1) 靑銅器時代住居址(海美 遺蹟 發掘調査) 1974年 韓國史. (金正基) 국사편찬 위원회 刊.

2) 扶餘 松菊里 遺蹟 發掘調査. 1977年 12月 國立中央博物館.

3) 光州 松岩洞 1號 住居址 發掘調査報告 1977. 11 全南大 崔夢龍.